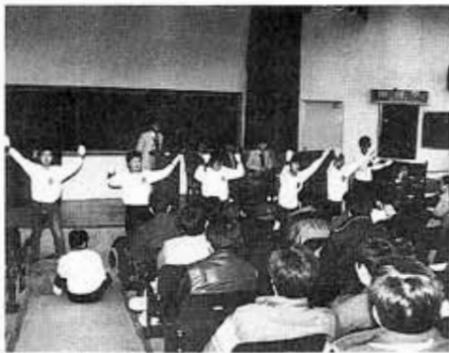


# 본사선정 89년 학내 7대 뉴스



### ◀ 5대 총학 선거

11월 22일 실시된 제 5대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학우들과 함께하는 강원 총학생회」 건설을 내건 기호 2번 김인준(경영과학, 87)~손재호(Ⅱ)후보가 당선 되었다. 선거운동기간 동안 각 후보측에서는 형형색색의 유인물과 대자보를 통해 각측의 공약을 알리고, 모교성과 통일된 복장의 유세단을 동원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폈다.



### ▶ 직원노조 결성

본교 직원노조가 5월10일 대강당에서 「노동조합 결성보고대회」를 갖고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본교 직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결성된 노조는 직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실질적 대표기구로 자리잡아 오고 있다.



### ◀ 신학생회관개관

모자랐던 동아리실 보존동 학내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제 2학생회관이 완공되었다. 건물 643평 지하 2층 지상 3층의 제 2학생회관은, 지하 2층은 기계실로 지하 1층은 단주장·서점·감화점·이발소로 1층은 휴게실로 2층은 세탁소·동아리실·다목적실로 3층은 학보사·동아리실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 ▲ 조기 졸업생 학위수여

본교 졸업생 23명에 대한 졸업증서 수여식이 9월 2일 교수회의실에서 있었다. 3년 6개월만에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친 조기졸업생들의 진로현황은 과기원 9명, 포항공대 대학원 5명, 취업 6명, 기타 2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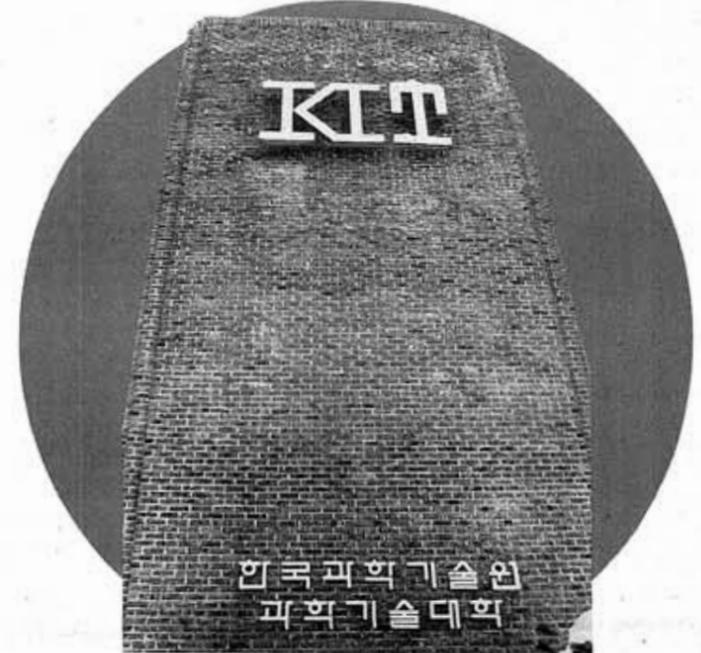
### ▶ 과기대·과기원 통합

21세기 첨단과학 한국을 이끌어갈 영재 양성소인 과기원과 과기대가 통합됨에 따라 90학년도 과기원 석사과정 입학생 5백70명 전원이 대명캠퍼스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대학기구도 과기원의 현기구와 유사한 체제로 전면 개편되었으나 불명확한 통수식의 통합에 대해 일부에서 논란이일기도 했다.



### ▲ 진로문제 진통

4월 4일 1천2백여 학우들은 본교 도서관 앞 광장과 대학본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조기졸업생의 진로대화에 대해 학교측은 비공개적이고 비민주적인 논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때 교수·학생 진로대책위원회 결성을 놓고 학교측과 대립한 학우들이 중간고사출연 기하고 탄식농성에 들어가기도 했으나, 학교측의 진로지도위원회활강하해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한국과학기술원  
과기기술대학

### ▶ 농촌 봉사활동

광주직할시 광산구 입곡동의 3개부락 농촌·연계·광곡에서 본교 농학대원 80여명은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하계 농촌봉사활동을 펼쳤다. 김관호우로 산사태·가옥침수등 큰 피해를 입은 이 마을에서 가졌던 이번 농학은 본교로서는 처음이었다.



신물질·신소재·신자원을 창조하는-럭키

人間·技術·未來  
럭키금성

## 기초원료, 생활·산업자재에서 첨단미래산업까지 — 럭키가 펼쳐가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창조정신으로**  
중요로운 미래를 앞당기는 럭키 —  
우려와 화학공업을 선도하여, 끊임은 도전과 창조정신을 통해 "세계속의 경쟁력회사"로 성장한 럭키 —  
럭키는 기초원료, 생활·산업자재는 물론 무공해양, 동등성상속전체 인체는 부작용없는 제3세대 합성세제발 등 첨단산업에 있어서도 고도의 기술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신물질, 신소재, 신자원의 창조로 중요한 미래생활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럭키는 사업분야인 「생활·신재부문」, 「화학부문」으로 2천여 기업장점의 효율화를 기함으로써 「IDEAL21세기」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생활·신재부문**  
1947년 창업 이래 「신뢰할 수 있는 럭키」의 이미지로 국내외 화학공업을 선도해온 럭키는 탁월한 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생활용품과 화장품 건축 및 산업자재는 물론 고부가가치의 정밀화학제품, 유전공학에 이용한 의약품 등 첨단제품 또한 꾸준히 연구개발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화학부문**  
합성수지 기초원료와 고도의 석유화학원료를 생산함으로써 국내외 화학공업을 선도하는 물론 연차사업 프라사티 등의 신소재를 개발해온 럭키는 첨단기술을 갖춘 여천석유화학단지과 나주공장의 네트워크체제를 통해 국내외 화학공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럭키